

# 광주·전남 외국인 범죄 갈수록 흉포화

### 흥기 무장·집단 폭행·살인 등 시민들 불안 범죄 건수 해마다 증가...관리·보완책 시급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 특성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칼과 총기류까지 사용하는 등 갈수록 흉악해져 치안당국의 관리와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6건, 2018년 200건, 2019

년 252건 등으로 최근 3년 새 700건에 달한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동안 전남지역에서도 총 548건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유형도 강도 등 단순 범죄부터 흥기 무장과 집단폭행, 살인까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강력범죄도 '폭력'이 653건(광주 320건·전남 3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 유통 및 투약' 176건(광주

163건·전남 1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살인사건은 광주 5건, 전남 8건 등 13건 발생했다.

또 절도범죄도 300건(광주 113건·전남 187건), 흥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범죄도 14건(광주·전남 7건) 발생했다.

실제 지난 24일 광산경찰서는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A군(14)을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새벽 2시에 광산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현금 8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자동차 등 1,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15일 밤 11시 10분께 광산구 한 술집에서 베트남인 A씨(23)가 흥기에 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가 흥기에 질렸다. 피의자는 2018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외국인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산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 하는 송주희씨(34·여·가명)는 "밤이 되면 길거리에 만취 상태로 주먹다툼을 벌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저녁시간대 산책을 나오더라도 혹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수사대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고려인 자율방범대 등 민·관이 동시에 외국인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접촉시 문화적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시비나 말다툼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은 총 7만 2,183명(광주 2만 9,933명·전남 4만 2,250명)이다.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에 입국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지역 내 외국인 수는 8만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김중찬 기자

#### 오늘의 날씨

|    |         |    |         |
|----|---------|----|---------|
| 장성 | ☁ 24~30 | 곡성 | ☁ 24~30 |
| 담양 | ☁ 25~30 | 구례 | ☁ 24~30 |
| 화순 | ☁ 25~30 | 곡성 | ☁ 24~30 |
| 영광 | ☁ 24~30 | 완도 | ☁ 25~29 |
| 함평 | ☁ 25~30 | 강진 | ☁ 25~30 |
| 무안 | ☁ 24~30 | 장흥 | ☁ 24~30 |
| 영암 | ☁ 25~30 | 해남 | ☁ 25~30 |
| 진도 | ☁ 25~30 | 고흥 | ☁ 25~30 |
| 신안 | ☁ 25~30 | 보성 | ☁ 23~30 |

일출 06:06 일몰 18:58  
월출 19:21 월몰 05:44

|    |                                  |    |                                  |
|----|----------------------------------|----|----------------------------------|
| 목포 | 만조 02:34 14:29<br>간조 07:45 19:47 | 여수 | 만조 09:11 21:43<br>간조 03:11 15:10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광주·전남 마스크 미착용 신고 237건

### 형사처벌 17건... "경미한 사안도 무관용"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위반자가 200명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공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역 159건, 전남 78건 등 총 237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대중교통·다중시설에만 적용되던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각각 286건·70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5월 33건에서 6월 61건, 7월 155건으로 증가했다.

식당과 카페 직원, 버스·택시 운전 기사 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착용하지만 일부는 거부하거나 행패를 부려 신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각각 9건·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화' 이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 잠시 벗거나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턱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 5·18 유공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5·18 민주유공자가 영구임대아파트 화단에서 숨을 마갔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광산구 한 영구임대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A씨(60)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온몸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5·18 유공자인 A씨는 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이른 오전 1년여 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더는 삶에 미련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노후 자금을 예비 삼아 평생 못했던 여행 등을 최근 반년 동안 누렸다는 근황도 지인에게 전했다.

경찰은 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영봉 기자

## 기아차 취업사기 50대 목사 구속...공범 추적 중

### 경찰 "범죄 피해액 일부 이득 사실 확인"

기아자동차 취업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아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한 교회의 목사인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취업 사기 피해자들이 65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50여원을 넘어섰다는 추정도 나오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받은 피해 진술은 10여건이다.

A씨는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으면 기아차 측이 협력사에서

곧바로 정규직을 총인한다는 등으로 구직자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 B씨에게 본인도 속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피해액 일부로 A씨가 이득을 본 사실을 확인하고, 사

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B씨를 출국 금지하고 추적하고 있다.

B씨는 A씨를 다른 교회 목사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협력사 사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거나 기아차 허위 문건을 제시하며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목사가 사기 범죄로 이득을 본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구속했다"며 "달아난 공범 B씨를 검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 만취 운전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돌진

만취한 운전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차량 돌진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오전 8시 14분께 복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렉스턴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운전자 A씨와 공인중개사 내부 근무자도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김중찬 기자

##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주)금호주택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임대문의 062) 382-8879

---

####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